

타이거즈 樂과 靛 사이



홍건희·임기준 호투 마운드 안정 찾는데 사구 맞은 김주찬 최소 2주 결장 불가피

선발진 재정비로 KIA 마운드에 청신호가 켜졌다. 타선은 김주찬의 부상으로 적신호가 들어왔다.

KIA 타이거즈는 주말 NC 다이노스와 홈 3연전을 치렀다. 소득과 손실과 있었다. 마운드에서는 홍건희와 임기준이 김기태 감독을 웃게 했다. 하지만 잘 버티던 외야수 김주찬이 견갑골 미세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

후반기 고정 선발진으로 가겠다는 김 감독의 구상은 잘 풀리고 있다.

임시 선발 타이틀을 떼고 정식 선발로 들어섰던 지난 10일 두산 원정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던 홍건희는 후반기 첫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22일 NC와의 홈경기에서도 6.1이닝 6피안타(피홈런) 3볼넷 4탈삼진 3실점의 호투로 승을 거뒀다. 105개의 공을 던지면서 자신의 역대 최다 투구수도 기록했다.

변수 많은 5선발에는 임기준의 활약이 있었다. 23일 NC 스투어트와 맞대결을 벌인 좌완 임기준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면서 눈길을 끌었다. 5회까지 무실점의 공방을 벌였던 두 사람. 6회가 아쉬웠다. 데임즈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임기준이 박석민의 안타로 무사 1·2루에 몰렸다. 임기준은 앞선 두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던 이호준의 희생번트로 원 아웃을 잡은 뒤 등판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구원 등판한 최영필이 적시타를 맞으면서 2실점을 남기게 된 임기준은 타석의 긴 침묵 속에 0-5, 올 시즌 KIA의 세 번째 무득점 경기의 패전 투수가 됐다.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임기준은 '인생투'를 보여줬다.

"영리한 투수다.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좋다. 앞으로 어려움도 생기겠지만 잘 헤나갈 것이다"며 홍건희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보여준 김기태 감독은 "(6회 위기 상황을) 넘기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임기준을 빨리 교체했다.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점수를 준다 생각했으면 (임기준이) 던지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을 전했다. 팀이 떨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한 선택이다. 다음에도 임기준이 선발로 나선다"며 임기준



홍건희

의 다음 선발 등판을 예고했다.

전반기 KIA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선발진'이 홍건희의 선발 연착륙과 임기준의 상승세로 새 틀을 갖추게 됐지만 화려 약화가 아쉽다. 올 시즌 꾸준하면서도 강렬하게 역할을 해줬던 김주찬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다. 김주찬은 22일 첫 타석에서부터 타진 선제 스리런으로 63 타점째를 기록하며 자신의 역대 최다 타점 기록을 새로 썼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부상으로 쓰러졌다. NC 선발 정수민의 공에 왼쪽 견갑골을 맞은 김주찬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숨을 고른 뒤 그라운드에서 뛰기 시작했다. 숨을 고른 뒤 그라운드에서 뛰기 시작했다. 숨을 고른 뒤 그라운드에서 뛰기 시작했다.

김주찬의 공백은 바로 팀 안방패로 이어졌다. 23일 KIA는 스투어트 공략에 실패, 3안타를 만드는데 그치면서 0-5패를 기록했다. 만점 활약을 해줬던 김주찬의 부진과 새로운 리드 오프 신종길의 기록, 여기에 서동욱·필의 매서움도 떨어지면서 김주찬의 공백은 크게 느껴졌다. 김주찬을 대신해 불러들인 오준혁의 패기와 김원섭의 노련미로 위기를 넘겨야 하는 KIA다.

KIA의 방패는 견고해졌지만 창이 무뎠다. 호재와 약재를 동시에 만난 KIA가 어떤 후반기를 보낼지 이목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NC 다이노스 경기 3회말 1사 1루에서 KIA 김주찬이 NC 선발 정수민의 볼에 맞은 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유창식 "2014년 한화때 승부조작"

KIA에 자진신고

KIA 타이거즈 좌완 유창식이 승부조작 사실을 자진신고했다.

KBO는 24일 "유창식이 지난 23일 구단 관계자외의 면담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진술했으며, 유창식의 소속구단인 KIA가 어제 오후 KBO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창식은 한화 시절이던 지난 2014년 4월1일 삼성과의 홈 개막전에서 1회초 3번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첫 이닝 볼넷"을 조작하기 위한 의도적인 볼넷이다. 이에 따라 KBO는 해당 수사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

KIA 관계자는 "면담 과정에서 자진 신고를 해서 KBO에 알렸다.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송정시장에 간 필...떡갈비 먹는 심동섭

광주 사랑 홍보영상 챔스필드서 만나요

KIA 타이거즈가 전광판을 통해 연고지 광주를 홍보한다.

KIA는 지난 23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전광판을 통해 광주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먹거리를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해 선포한 구단 비전 'TEAM 2020'의 실행과제 중 하나인 '지역 밀착 마케팅'을 통한 지역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광주의 명소와 먹거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를 위해 KIA는 지난 6월 선수들이 직접 출연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먹거리 홍보 영상 2편의 촬영을 마쳤다. 전통시장 활성화 편에는 양현종과 필, 서동욱이 KIA타이거즈 '더 뉴 응원단'과 함께 출연했으며, 먹거리 편에는 투수 홍건희와 심동섭, 박준표가 참여했다.

양현종과 필, 서동욱은 광주의 새 명소로 떠오른 '1913 송정역시장'을 찾아 전통시장만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담았다. 또 선수들이 직접 상인이

되어 사인볼을 판매하는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체험했다.

'1913 송정역시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하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결과물로, 침체됐던 송정역 매일시장을 리모델링해 지난 4월 재개장한 뒤 하루 수백 명이 찾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다.

먹거리 영상에서는 광주의 대표 음식인 송정떡갈비와 육전, 상추튀김을 홍보한다. 챔피언스 필드 장내 아나운서 'MC이슈'의 진행으로 선수들은 체력 관리 비법과 휴식일 취미 생활 등을 이야기하고, 게임을 하며 '남도의 맛'을 자랑한다.

KIA의 광주 사랑 영상은 구단 홈페이지(www.tigers.co.kr)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kiabaseballclub),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iabaseballclub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민우 코치로 새출발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민우(37)가 현역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다.

KIA는 24일 한국야구위원회에 내야수 김민우에 대한 웨이버공시를 신청했다. 김민우는 최근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김민우의 뜻을 받아들여 웨이버 공시 신청을 하게 됐다.

김민우는 2013시즌을 마치고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넥센에서 KIA의 유니폼을 갈아입은 뒤 주전 2루수로 활약을 했었다. 지난해 5월13일 kt와의 경기에서는 연장 10회 생애 첫 날내기 홈런을 터트리기도 했다. KIA 구단은 김민우를 전력분석 코치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가 골 침묵을 깨고 다섯 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무등산 패트리어트' 정조국은 투입 4분 만에 쐐기골을 터트리면서 자신과 광주의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

광주 FC가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2016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경기에서 후반전에 세 골을 몰아넣으며 4-0 대승을 거뒀다. 앞선 4경기에서 2무2패를 기록했던 광주는 뜨거운 화력으로 7월 첫승을 올리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9위 수원 삼성에 1점 차로 쫓겼던 광주는 승점 3점을 보태면서 한시름 덜었다. 광주의 올 시즌 전적은 7승7무8패, 수원은 22라운드 전전과 경기에서 0-3으로 지면서 5승9무8패(승점 24)가 됐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광주의 화력쇼를 예고하는 선제골이 나왔다.

파비오를 전면에 내세워 송승민-김민혁-조용태로 공세에 들어간 광주. 조용태

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띄운 공을 송승민이 헤딩슛으로 상주의 골망을 흔들면서 시즌 4번째 득점을 올렸다. 지난해 세 골을 기록했던 송승민의 개인 최다골이다. 조용태는 시즌 첫 도움을 기록했다.

광주는 상주 김요규의 퇴장이라는 호재도 만났다.

1-0의 리드 상황에서 맞이한 후반. 이번에는 주현우가 주인공이 됐다. 후반 9분 상대 진영으로 공을 몰고간 주현우는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는 원맨쇼 끝에 원발로 침착하게 상대 골대를 뚫었다.

그리고 후반 21분 광주의 역사를 바꾸는 정조국의 골이 기록됐다.

후반 17분 김정현을 대신해 그라운드에 오른 정조국이 4분 만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정조국의 패스를 받은 정조국이 원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시즌 14번째 골을 신고했다. 상대 골키퍼 양동원은 그대로 선 채로 세 번째 실점 장면을 지켜

봐야 했다. 이 골로 정조국 자신과 광주의 역대 최다골 기록이 새로 작성됐다. 정조국은 지난 20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13번째 골을 기록, 자신의 역대 최다골이자 루시오가 가지고 있던 광주 역대 최다골에 타이틀을 이뤘었다.

경기 종료로 앞두고 남기일 감독의 교체 카드가 다시 한번 적용됐다.

후반 33분 김명빈과 교체 투입된 수비수 오도현이 대승을 자축하는 골을 터트렸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파비오가 띄운 공을 받은 오도현이 멋진 발리슛으로 광주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2013년 금호를 졸업하고 광주에 입단한 오도현은 프로 데뷔골로 무승 탈출의 기쁨을 더했다. 파비오도 도움을 올리면서 시즌 첫 포인트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

승리 해갈 '골 소나기'...정조국 시즌 최다골

<14골>

K리그 클래식 22R 광주 FC, 상주 상무에 4-0 대승...5경기만에 분위기 반전

이태리소파 · 식탁 대전

신상품 다량 입점 8월 25일까지



SINCE 1990

홍스개이스

hong79.com

NAVER

홍스페이스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